

## 이지의 《분서》

### 태우려야 태울 수 없었던 《분서》의 정신

글\_ 표정훈



《분서》 1, 2 이지 지음  
| 김해경 옮김 | 한길사  
11권 559쪽, 2권 672쪽  
11권 25,000원, 2권 30,000원

호를 탁오(卓吾)라 하는 나, 이지(李贄: 1527~1602)는 크게 네 종류의 책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장서》(藏書)인데, 고금 수천 년 동안의 시시비비 중에서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바를 말하였다. 이 때문에 숨겨두려 했으니, 《장서》라는 책제목은 응당 깊은 산 속에 숨겨서 후세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심정을 말한 것이다. 또 하나는 《분서》인데, 마음 맞는 벗들의 편지 물음에 대한 답장으로 요즘 학자들의 폐단에 대해 자못 절실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고질병을 정면에서 꼬집었으니, 그들은 필시 나를 죽이고 싶겠지. 이 때문에 책을 태우려 하였으니, 응당 불태워 없애야 하고 남겨두면 안 되는 사정을 말한 것이다.

《분서》에 실린 글들은 내가 명나라 만력(萬曆) 4년부터 36년 사이(1567~1602)에 쓴 것이다. 《이씨 분서》로도 일컬어지는 《분서》는 모두 6권이며 서답(書答), 잡술(雜述), 독사단문(讀史短文), 시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대로 태워버리고 말지 왜 책을 냈느냐 묻는 이도 있었다. 내 글을 태우려는 자들은 그것이 귀를 거스른다 말하고, 내 글을 인쇄하고 싶어 하는 자들은 그것이 마음속으로 속 들어온다 말한다. 귀에 거슬린다는 자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두렵지만, 내 나이 예순넷이니 어느 한 편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면 나를 알아줄 자가 혹여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요행을 바란 탓에 태워버리지 않고 책을 낸 것이다.

유학자들은 내 책과 나를 무던히도 미워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유학자들의 태도와 생각과 행실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은 유학의 정통에서 벗어나는 모든 인물과 사상을 이단으로 지목하곤 한다. 그러나 큰 업적을 남기는 위인은 반드시 후환을 고려하지 않아야만 공을 이루게 된다. 진나라의 상군이나 초나라의 오기가 바로 그러했고 묵자(墨子), 신자(申子), 한비자(韓非子)도 그러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공도 세우고 후환도 없애고 싶어 하니, 그들은 후환을 고려하는 마음으로는 천하의 위업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유학자들은 촉나라 초주가 나라를 진나라에 바쳤다고 비방하고, 풍도가 다섯 왕조를 섬겼으니 절개가 없다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학자들의 비난을 들을지언정 무고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고통 받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다. 그들 모두 고유한 학술이 있었으니, 결코 터무니없는 엉터리가 아니었다. 각자의 처지와 능력과 판단에 따라 결국 큰 일을 이뤄낸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저 짐생이 같은 유학자들은 명문과 실리라는 두 가지 이익을



####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가(賣文家)'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를의 운명을 지낸다》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진영첩의 주자강의》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검비하려 드니, 그것이 가능키나 한 노릇이던가? 그들은 앞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핀다. 자신만의 고유한 학술이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신뢰할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진부한 옛 타령이나 모방하고 지나간 자취를 따르며 거기서 감히 반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작자들이다. 그런 유학자들은 《수호전》 같은 책을 업신여기면서 반역의 무리들을 높였다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면 반드시 《수호전》을 읽어야 한다.

수호에 모여 든 이들은 천하장사이면서 현인이고 또한 충성과 의리를 겸비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호전》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병사를 부리는 자가 계책을 짜내기 위한 학습서도 아니다. 충성과 의리를 읽어낼 수 있는 책이며, 임금과 재상과 장군이 충성과 의리를 자기 곁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나는 《수호전》의 체제를 바꾸어 《충의수호전》을 편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유학자들이 자주 비난하는 책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나를 두고 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말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긴, 유교와 불교와 도가의 근본 취지가 같다고 보아 62세 때 출가하여 절에서 기거한 나를 유학자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는가?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는 유학자들과 달랐다. 제갈공명은 기산으로 여섯 차례나 출정하여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려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해마다 백성들을 동원하여 무고한 양민들을 수천 리 밖 전쟁터로 내몬 처사였다. 기왕에 백성을 사랑하고자 한다면서 또 주군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제갈공명은 스스로 적군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승리를 바라는 욕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욕심이 많았던 그는 어질고 의롭다는 말까지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한 까닭에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공자는 여자와 소인은 상대하기 힘들다고 말하여 여자를 다분히 폄하했지만, 나는 여자와 남자의 견식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진정으로 올바른 견식을 지닌 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세상 남자들은 그런 여자 앞서는 부끄러워 식은땀을 흘리며 감히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 옳은 소리지만, 견식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어찌 가당하겠는가? 나는 매담연이라는 총명한 여인을 비롯한 몇몇 여인을 제자로 받아들여 함께 학문을 논했으나, 나를 탄

핵한 이는 내가 ‘여인들을 암자로 꼬여내 사통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나의 생각을 담은 《분서》를 유학자들이 백안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력 30년(1602) 2월에 나는 흑세무민의 죄로 탄핵당하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옥에 갇히고 한 달이 지난 3월 25일, 나는 머리 깎는 칼로 내 목을 찔렀다. 그리고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나와 교류했던 많은 이들이 나의 일대기와 제문과 묘비를 짓고 유작집을 내주었지만, 1625년 희종 황제는 나의 저작을 금지시키라는 상소를 용납하여 나의 저작을 불태우고 금지시켰다. 청나라 때인 건륭(乾隆) 47년(1728)에는, 사고전서관의 총재가 황제에게 바친 금서 목록에서 나의 《분서》《장서》《속장서》 등이 전면 금지 서적으로 분류되었고, 기타 많은 나의 저작들이 금지 서적으로 지목되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내 삶에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것에 더없이 충실하게 살았으니 어찌 후회 따위가 있으랴. 어떠한 가식도 없이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 비록 그런 삶이 세상과 늘 불화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일 것이다. 그러나 일말의 후회, 아니 깊은 후회가 하나 남기는 한다. 세상과 불화하는 괴팍하고 고집스런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다 이승으로 떠난 나의 아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의 아내를 그리며 지은 시 ‘곡황의인’ (哭黃宜人)의 일부를 다시 떠올려 보고자 한다.

상투 들고 쪽지며 부부가 된 이래  
둘 다 사랑에는 억매이지 않았지.  
오늘 아침 당신의 부을 듣고서  
나도 모르게 서러움에 잠겨버렸소.

자애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나눴지만  
스스로는 절약하며 집안살림 알뜰했지.  
남편이란 작자가 불도에 미쳐 떠나가며  
당신만 세상 끝에 홀로 떨어져있구려.

